

건강 칼럼

무의식이 열려있는 정신병

현 대사회에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질병 중의 하나가 정신병이 아닌가 생각된다. 생각지도 못한만한 끔찍한 살인사건, 성폭력, 강간 등에는 정신병이 언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고를 내고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정신병을 거론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사고와 윤리에서는 큰 죄로써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신적인 질환에 관해서는 한의학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 동의보감에 보면 몸의 중요한 것으로 정(精),기(氣),신(神)이라고 하여 우리 몸을 운행시키는 중요한 성분으로 보았다. 그중에 신(神)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심(心)에 신이 있다고 하여 신(神)과 심(心)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또한 희(喜),노(怒),우(憂),사(思),비(悲),경(驚),공(恐)의 七神(칠신),七情(칠정)이라고 하여 질병과 관련시켜 이러한 감정에 의하여 다르게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 정신질환으로 경기(京畿), 정충증(症), 건망증, 간질증, 울광증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였다.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애(愛), 노(怒), 희(喜), 락(樂)의 성(性)과 정(精)에 따라서 체질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병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모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정신질환에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여기서는 프로이트, 라캉 등의



김수범
우리의원장

정신분석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한의학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지만 서로 통하는 면도 없지 않다. 정신분석에서 정신질환은 크게 정신병, 신경증, 도착증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신경증에는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정신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정신병은 폐제(廢除)되었다고 한다. 신경증의 억압, 도착증의 부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아가 무엇인가를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보거나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와 아이의 밀접한 관계에서 아이가 주체로써 자리를 잡아야 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견제를 해 줌으로써 주체가 형성이 되어 사회적, 언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의식의 형성에 완전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정신병의 발생할 수 있다. 정신병이 있다고 하여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발병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경우에 나쁜 생각, 성적인 생각, 비도덕적인 생각, 비윤리적인 생각, 충동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 억압을 하여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한다. 충동이 일어나도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생각을 하여 억제를 하게 된다. 정신병은 무의식이 열려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 억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살인이나 강간같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치심은 있을지라도 죄의식은 없는 것이다. 보통 죄의식은 억압을 전제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무의식이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하여 상징화가 되어야 한다.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지며 언어에 의한 상징화로 구성되어 진다. 정신분석에서는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상상계로서 눈으로 보아서 형성된 것이다. 상징계는 어떤 물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언어에 의하여 상징적으로 무의식에 인식하는 것이다. 실재계는 본질 자체를 말한다. 정신병에서는 언어에 의하여 상징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상징계가 없으므로 욕망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또 억압이 없기 때문에 의식과 질문도 생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과거, 동기, 심지어 사고와 꿈에 대하여도 전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사고하는데 취약한 면을 보인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한다. 정신병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상식적인 생각, 교육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도덕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병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밀접한 관계, 즉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는 어머니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서로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을 한다던 아이의 주체가 형성되지 않아 정신병이 발병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이의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름, 즉 역할로서 어머니와 아이사이엔 간격을 두게 하는 것이 정신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사설

군산 살리기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용기를 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민을 포함해 도민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여론이 높다. 한국동서발전이 군산조선소 16만 평방미터의 유휴부지에 15.2 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의 반발이 거세다. 군산 시민을 포함해 도민들 대다수는 예전 그대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군산시는 주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제 정부라고 해도 그렇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어느 쪽이 영향가가 높은 지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엔 군산 살리기를 확실히 해야겠다. 전북을 위해서 전북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군산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더욱더 필요하다.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그 지원은 그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엔 군산형 일자리 추진 행보가 뚜렷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등 잇따른 주력산업의 붕괴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군산 경제를 위해서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시민의 뜻에 부응해 군산 살리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현대조선소 쪽에서는 말을 삼가고 있지만 군산 시민들은 그 뜻이 분명하다. 그동안 재가동이 될지도 모른다는 미련 섞인 말들이 왜 나왔겠는가.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것을 삼가해야 한다. 태양광 사업이 모든 실직자를 흡수할 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모르려나와 그렇지 않다면 답이 아니다. 지금 군산 경실련은 군산조선소 공장 재가동 선언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판이다. 전북도는 판단을 잘 해야 한다. 두 갈래 길에서 갈라질광하면 곤란하다. 선택은 하나다. 다시 강조해 당부하겠지만 군산을 살리려면 군산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군산 살리기는 눈치를 볼 대상이 아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날 군산 경계가 거둬 무너질 때 발만 동동거렸을 뿐이다. 이제 그래서 안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믿음직한 구석이 있어야 한다. 군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 뜻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금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짚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 고민해야

전북도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밝힌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매우 반가운 마음이었다. 그것은 일자리 대책 강구가 인구 감소를 막는 지름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예전 그대로 어두운 것 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경제신포들이 빨간불인데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니까 말이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해야만 되겠다. 정말이지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전히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태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숭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제 고유의 사세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

어지는데도 어떻게 물어 물어 보려는 움직임이 부족하니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전북도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인구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해마다 이때쯤이면 느끼는 것이 있을 터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참담함을 느껴야 한다. 전북도가 분발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재언

사랑이 아닌, 엄연한 범죄! 데이트폭력

해마다 데이트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64명, 2017년 282명, 2018년 284명으로 3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하는데, 폭력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압박,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범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70%로 높은 편이라고 한다.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인지하면 용기를 내어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없고 스토킹 처벌 근거역시 경미범죄일 뿐이지만,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6년부터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피해자에게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을 갖게 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부부나 커플사이의 싸움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최혜진 경찰청장서 경무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발적 임신중지(낙태) 합법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이 녹색 스카프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